

신안 1004섬 자원·문화 공공데이터 구축한다

군, CJ올리브네트웍스 등과 '디지털 섬문화 활성화' 협약
섬 문화 조성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등 상호 협력

신안군은 지난 25일 신안보건의 회의실에서 CJ 올리브네트웍스,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와 함께 '디지털 섬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섬이 보유한 자원과 자산을 수집·활용해 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힘을 모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신안군 섬 자원과 자산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연구 ▲섬 자원·자산 기반의 디지털 섬 문화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등에 상호 협력하고, 민·관·거버넌스 협업의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협약을 계기로 섬 데이터의 가치를 높여 국가의 미래비전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SW(소프트웨어) 창의캠프'를 신안군에 거주하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역 IT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

다. 비대면으로는 인공지능(AI)과 SW 교육과정을 도입해 AI 개념을 이해하고, 코딩체험을 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한다.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이사는 "정부의 뉴딜정책에 맞춰 지자체의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 및 역량을 통해 신안군 섬 데이터 활성화는 물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태환경 보전,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및 정책 수립,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AI 등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섬 데이터 담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은 정부 뉴딜사업의 핵심 동력인 폭력·조력·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및 역사, 문



신안군은 지난 25일 보건소 회의실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와 '디지털 섬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신안군 제공>

화, 관광, 해양수산 등 다방면으로 풍부한 섬 자원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개관한 신안군 기록관에는 일제강점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많은 섬문화 관련 비정형화 기록물이 보관돼 있으며,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DB 구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민·관 및 거버넌스 간 상호협력은 신안군이 가진 섬 고유의 자원과 자산 데이터를 새롭게 활용하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목포해양대~서해어업단 910m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목포해수청, 실시설계 착수

목포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 해양대~서해어업단 리단을 잇는 진입도로 910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중 착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목포 북항은 서해어업단리단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속기관 및 다수의 공공기관에 이어 지난해 말 목포수협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인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역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다. 도로개설 공사에는 설계비 11억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38억원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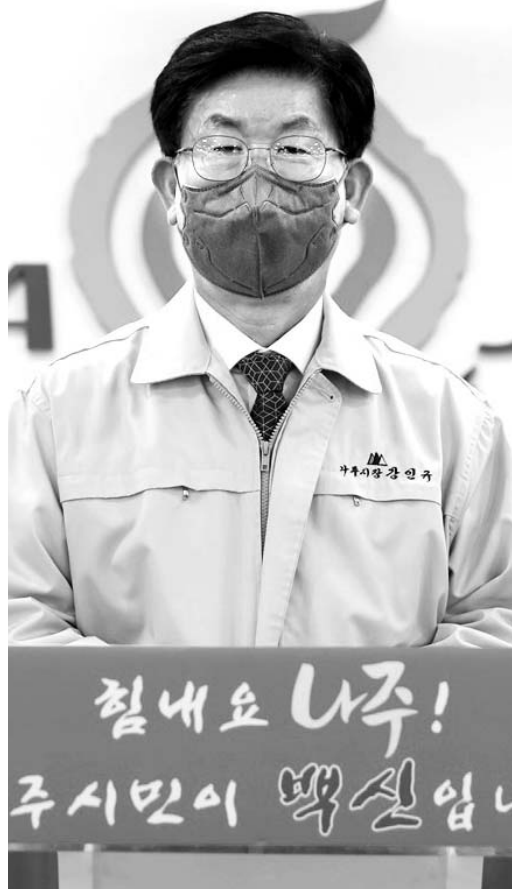
목포해수청은 용역착수 후 목포시를 비롯해 북항에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중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올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방침이다.

현재 북항 배후부지 진·출입은 북항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하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나주시·장성군도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시의회와 규모·시기·방법 협의...장성은 10만원씩



강인규 나주시장이 26일 시청 이화실에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알리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와 장성군도 모든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26일 시청 이화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지급 규모는 세출 예산 절감과 재정 수요 분석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되 늦어도 3월 이전에는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나주시는 그동안 가용재원 감소와 지출 수요 증가에 따른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코로나19 재정지원의 하나로 상하수도 요금과 농기계 임대수수료 감면, 나주시립박물관 유동 확대 등 간접 지원에 주력했다. 지난해 지급한 정부 1차 재난지원금 31억100만원과 전남형 재난지원금 44억6900만원은 정부와 전남도가 지원한 재원에 시비를 보태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도 이날 영상브리핑을 통해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입은 수해 복구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군민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자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행사성 사업과 경상 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급 시기와 대상, 방법 등 세부사항은 추후 중앙정부 방침과 인근 지자체 동향, 주민 여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립하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정과 임시회 소집 등 필요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장성군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성군 총 인구는 4만5457명으로, 이를 반영하면 재난지원금 소요액은 약 46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남지역 지자체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는 순천시, 여수시, 해남군, 영암군, 고흥군, 나주시, 장성군 등 7곳이며, 검토 중인 지자체는 광양시, 영광군 등으로 알려졌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유두석 장성군수가 26일 영상 브리핑을 통해 "모든 군민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장성군 제공>

재난지원금 25만원씩

여수시, 2월부터 지급

여수시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18일 0시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가족으로, 28만5000명이다.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65세 이상은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26일이며, 주민등록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가족을 대리해 일괄 수령할 수 있다.

동거인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재난지원금 신청 혼잡을 막기 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첫주인 2월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8월31일까지 여수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와 유통업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기부를 원하는 시민은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를 쓰면 된다. 여수시는 기부한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동안 생활 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 참여한 시민께 위로와 격려가 되길 바란다"며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과 상담]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SGI서울보증

AIG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KOREAN

BNP PARIBAS CARDIF

CHUBB

Carrot